

August Konkel 박사, 역대기, 12회, 솔로몬이 왕이 되다

© 2024 거스 콘켈(Gus Konkel) 및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역대기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는 아우구스트 쿤켈 박사(Dr. August Kunkel)입니다. 12회, 솔로몬이 왕이 되다입니다.

역대기 기자는 이제 다윗의 이야기와 그가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한 방법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제국을 건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한 일은 대부분 하나님의 왕국을 준비하는 것이었고, 그 왕국을 대표할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주신 약속에 근거한 것입니다. 당신은 묻힐 것입니다. 너는 네 조상과 함께 있을 것이요, 네 아들은 네 왕위에 앉을 자요, 영원한 나라의 대표자가 될 것이니라.

물론 이제 우리가 시편에서 보기 시작하는 영원한 왕국은 시편 2장처럼 솔로몬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이 왕의 핵심 대표자입니다. 시편 2편에 대해 조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시편이 다룰 모든 것, 특히 처음 89장에서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시편 2편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어찌하여 나라들은 일어나며 백성들은 이런 헛된 일을 상상하는가? 왜 우리는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합니까? 우리를 속박하는 이 밧줄과 족쇄를 떼어내자.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에 앉으신 분이 웃으실 것입니다. 유머로 웃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서는 그들을 조롱하고 계십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평범한 왕국과 함께 주님이신 하나님의 왕국을 대적하기 위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시편 2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부으신 이는 시편 2편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왕을 시온산, 나의 거룩한 산에

부었느니라. 그는 토기장이가 쓸모없는 그릇을 깨뜨리듯이 나라들을 깨뜨리는 분입니다. 이 사람은 통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왕들아, 지혜를 갖고 아들에게 경배하라.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자시니 그가 진노하사 너희가 길에서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내용은 시편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왕국을 이해하는 것의 핵심입니다. 역대상을 마무리하는 이 두 장은 정말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역대상 전체의 의미에 대한 요점을 알고 싶다면 진지하게 이 두 장을 묵상하십시오. 왜냐하면 여기에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지시하면서 정말로 중요한 모든 것, 그의 왕국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이 왕국은 시편 2편의 고백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솔로몬 자신에 관한 것도 아니고 솔로몬 자신의 통치와 결합되지도 않습니다. 그 점은 이제 우리가 살펴볼 역대하에서 분명해질 것입니다. 사실, 솔로몬 왕국은 아주 행복한 방식으로 끝나지 않았고, 히스기야 시대까지의 나머지 왕들은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것처럼 실제로 일종의 신실함의 혼합된 예였습니다.

그러나 이 전체 이야기는 그 이상입니다. 시편 2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윗은 시편 2편이 말하는 것을 모든 백성에게 상기시킵니다. 22장에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개인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명령을 주었지만,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의 모든 대표자들과 모든 지도자들과 이 위대한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모든 자들과 그들의 온 가족과 백성을 대표하는 모든 사람들을 소집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왕국의 보좌를 다스리도록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것이 내 말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단어는 역대하 28장의 실제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그것들을 얼버무리지 마십시오. 사실 제가 역대기 주석의 초안을 편집할 때 하나님의 왕국을 언급했는데, 편집자의 질문 중 하나가 '이게 정말 역대기에 적합한 표현인가?'라는 점이 좀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편집위원회에는 다른 사람들도 있었는데, 수석 편집자가 나에게 보낸 메모에서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음, 네, 실제로 하나님의 왕국이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제 28장은 가장 명백한 언급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역대기 기자가 여호와와 왕의 보좌에 앉으신 분을 언급하는 여러 곳을 모두 더해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이것은 당신의 왕국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이며, 당신은 당신의 것이 아닌 나라를 다스리도록 선택되었습니다. 그 규칙을 어떻게 수행할지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통치와 당신의 왕국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당신이 대표하는 왕국은 사라지지 않을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선지자 나단은 그것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고 영원히 있을 것이라 말하였으니 이것을 선지자에게서 받았노라

그러므로 당신이 누구인지 기억하십시오. 사실, 여기 역대기에는 아주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 책은 솔로몬을 찬양하고 그를 왕이 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우는 동시에, 솔로몬이 누구인지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그는 대단한 정복자가 아닙니다. 그는 이집트의 막강한 황제나 메소포타미아의 함무라비 왕, 그리고 군대를 이용해 이 위대한 제국을 건설한 다른 일부 사람들과 같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 영토를 당신의 통제하에 두지 않았고, 당신이 대표하는 것은 이 제국의 영토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솔로몬은 실제로 여기에 있으며 자신의 역할에 대해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의 역할은 지시를 따르는 것이다.

제 생각에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는 지시를 따르는 것입니다. 나는 지시를 따르는 것이 꽤 어렵다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지침이 알려주는 것보다 더 잘 아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캔틸레버 우산 같은 것을 사서 조립해야 할 때마다 설명서를 옆으로 치운 다음 이 모든 부품이 어떻게 맞아야 하는지 알아내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모든 지시를 무시할 수 있을 만큼 똑똑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질책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나는 모든 지시를 무시할 수 있을 만큼 똑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는 내가 더 잘 알고 있고 스스로 알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글썄요, 솔로몬은 처음부터 다윗으로부터 정보를 얻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계획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표현이 어떤 모습일지 결정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 하나님의 성전이 무엇을 의미할지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모든 계획을 제시하고 이 구절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성전 건물에서 이 성전이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보여야 하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 다음 David는 29장에서 계속해서 계획을 세울 뿐만 아니라 재료도 갖게 되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럼 당신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이 작업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그것이 당신의 임무입니다.

이 지성소로 대표되는 음악과 모든 증거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여기에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실제로는 꽤 심오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구조 자체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다윗이 하는 일은 솔로몬에게 축복을 베푸는 것입니다. 여기에 조항이 있습니다.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그는 내 아들 솔로몬이 어리고 경험이 없다고 몇 번이나 말합니다.

이것이 제가 이 세상의 다른 모든 사람들에 대해 느끼는 감정입니다. 나는 73세이고 나머지는 모두 젊고 경험이 없습니다. 그들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실제로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문제의 사실은 수십 년 동안 이 순례를 해온 우리 중 일부가 실제로 몇 가지 굴곡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상치 못한 놀라움이 일어나는

종류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분명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생각을 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행하십시오. 그러면 복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매우 심오한 축복을 주며, 그가 이 모든 일을 수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생명을 영화롭게 하실 방식을 제시합니다. 그 다음에는 솔로몬을 왕으로 즉위시키는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따라서 다윗이 역대기의 역사를 떠나기 전에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온 이스라엘에 큰 절기가 있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을 통치자가 되니라. 열왕기를 읽어보면 전혀 이런 식으로 나온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도니야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점점 무기력해져서 더 이상 왕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되자, 아도니야가 자기 주위에 제사장과 용사 몇 명을 모아 그 골짜기에서 큰 잔치를 거행했다는 것도 압니다. 그는 자신을 왕으로 선포했습니다.

나단은 솔로몬이 후계자이자 왕이 될 것이기 때문에 밋세바에게 다윗과 이야기하라고 상기시켜야 했습니다. 그것이 모든 것의 정치적인 측면입니다.

그게 인간적인 면이죠. 그것이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방식이고 그들이 운동하는 방식이 그다지 행복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무엇을 염두에 두셨는지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항상 염두에 두셨던 것은 다윗이 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열왕기상에서는 다윗이 알고 있었다는 데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밋세바와 솔로몬에게 한 약속이 생각나자 그는 그것을 실행하여 솔로몬이 왕이 되고, 아도니야는 그의 반역 시도로 인해 매우 불행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역대기 기자는 그 모든 것을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모든 혼란스러운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다윗에게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이행하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대기 기자의 견해로는 다윗이 솔로몬에게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복을 주시어 솔로몬을 하나님의 나라 위에 세우셨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다윗 통치의 결론과 그것이 기록된 방식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역대기의 특징이 될 것입니다. 모든 기록에 기록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과 이것에 대한 주의 깊은 연구는 역대기 기자가 언급하는 모든 기록이 실제로 열왕기에 있는 기록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역대기 저자는 종종 이 기록을 쓴 선지자의 이름을 밝히지만 그것은 예언적 기록입니다.

그것은 왕실 기록이 아닙니다. 왕들은 자신의 통치에 대해 이런 종류의 기록을 남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에 대한 나쁜 점을 모두 말하지 않습니다.

선지자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역대기 기자는 이 모든 왕의 기록을 사용하며, 다윗의 기록을 전하기 위해 이 기록을 사용한 방식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물론,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왕국에 관해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종류의 세부 사항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 그가 이 기록들과 그가 이용할 수 있는 다른 많은 기록들을 사용했다는 것은 매우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Chronicler 역사의 몇 가지 핵심 전제를 확립했습니다. 우리는 예후다에서 이 사람들의 정체성을 확립했습니다. 그들은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을 수도 있고,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이용당할 수도 있고, 암몬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과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들은 그 모든 것을 올바른 시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고, 그들은 모두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유산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놀라운 유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되돌아보는 것은 그들의 성전이 파괴되고 그들의 국가가 멸망하는 것이다. 하지만 역대기 기자는 그것이 결코 진짜 요점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국가가 되는 것에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나의 국가가 되는 것에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국가로서 당신은 그분의 왕국을 대표하며, 그것은 당신이 국가나 제국이 되는 것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왕이라는 것을 아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당신의 왕으로 삼고 왕을 숭배할 때, 당신은 당신의 중요성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다른 모든 강대국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당시 예후드 주민들을 그토록 겁에 질린 페르시아 왕을 단 한 명도 언급할 수 없습니다. 우리 중 일부는 알렉산더 대왕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지만 아마도 그의 후계자 중 단 한 명도 언급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등과 같은 두 명의 로마 황제의 이름을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다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위대하고 강력한 왕국에 대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연대기 기자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시편 2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국가들은 분노합니다. 그들은 계속되고, 일어나고, 넘어진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강력한 국가들은 이제 그것에 대해 어떤 실수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 앞에 온 모든 것들처럼 지나가고 있습니다. 역대기 기자처럼 우리는 다른 종류의 왕국에 속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대기상의 마지막 두 장이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그것을 읽을 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족보에 관한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해하는 측면에서 조금 실망스럽다면 28장과 29장부터 시작하십시오. 걱정하지 말고 주변에 있는 다른 모든 격렬한 힘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너희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느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룰 요점입니다. 그래서 나는 짧은 설교로 역대상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역대기 기자가 내가 짧은 설교로 마무리하는 것을 기뻐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가 여러분에게 정말로 알기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왕국의 일부입니다.

역대기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는 아우구스트 쿤켈 박사(Dr. August Kunkel)입니다.

12회, 솔로몬이 왕이 되다입니다.